



# 전북도, 한우 유전체 분석 개량 '전국 최고 성과'

### 우수암소 2천두 중 488두 선정 전국 선발 축소 속 점유율 최상위 씨수소 4년 연속 배출 경쟁력 강화 전국유일 한우정액 생산·공급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한우 유전체 분석사업이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전북형 한우 개량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한우 유전체 기반 우수 암소 선발 결과, 전국 2,000두 가운데 전북에서 488두가 선정돼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유전체 기반 한우 개량정책이 국가단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부의 전국 선발 구

모가 지난해 3,000두에서 올해 2,000두로 약 33% 축소됐음에도, 전북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전국 점유율을 유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한우 개량 경쟁력을 이어갔다.

도는 전국 최초 수준으로 대규모 한우 유전체 분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고능력 한우' 9,399두를 지정·관리하는 등 과학적 개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도 축산연구소를 한우 개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유전체 분석자료를 활용한 고능력 한우 지정·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개량컨설팅, 친자확인, 혈통등록,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 등 종합적인 개량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도 축산연구소는 4년 연속 한우 씨수소(KPN)를 배출하며 현재 총 6두의 씨수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가운데 전국 최고



<사진=전북도>

수준의 성과로, 전국 유일의 한우 정액 직접 생산·공급기관으로서 지난해 도내 400여 농가에 개량용 정액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약 3만 개의 정액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전국 최대 수준의 유전

체 분석 기반과 체계적인 개량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암소 선발과 씨수소 배출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한우 개량정책을 지속 강화해 농가 소득 향상과 저탄소 축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

## 베트남 출신 부티하우 주무관, 근정포장 수훈

### 전북형 다문화정책 공로 인정 베트남 교류협력 가교 역할

부티하우 여성가족과 주무관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6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28일 수훈했다. 베트남 출신인 부티하우 주무관은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에 임용된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정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운영, 국제취득 비용 지원, 다정다감 방송 제작 지원, 가족발전 기본사업 수행단체 지원 등

전북형 다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 전북과 베트남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 협약 체결 과정에서 통역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교류 확대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에도 힘써 왔다.

부티하우 주무관은 "공직 입문 이후 가족처럼 따뜻하게 이끌어준 동료 선배 공직자들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민자들에게 희망과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오늘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내일까지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71곳 사전투표소에서 진행 모바일 신분증도 본인확인 가능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 방문하면 된다.

투표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야 한다. 또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 수 있는 앱을 실행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을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안은 '관내투표소'와 '관외투표소'로 구분설치되어 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지

역구의 구·시·군의회 선거구 내는 관내 사전투표에 해당, 투표용지만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의 구시군의원 선거구가 아닌 관외투표는 반드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서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에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서울=김영목기자

## "투표시간 보장해야" 전북선관위, 사업주에 안내

### 사전투표·선거일 근무자 고용주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미보장 시 과태료 부과될 수도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 27)부터 선거일 전 3일(5. 31)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달 초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정철 기자

## 김관영, 정읍·김제 맞춤형 7대 미래 공약 발표

### 정읍 첨단의료·동물의약품특구 김제 중심 스마트농업 대전환 구상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기호 7번)는 28일 정읍 시민들을 위한 '정읍 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 첨단의료 복합 산업단지 조성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지원 △내장저수지 주변 개발 등 도심 재생 활성화 지원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우주방사선 신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소개한 '정읍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정읍의 강점인 방사선융합기술(RFT)과 첨단의료 산업을 결합한 바이오 거점 구축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사업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바이오 거점 구축인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정읍이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는 "정읍에서 김제, 부안을 관통하는 동진강이 산업화와 하천정비 등으로 크게 훼손돼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회복과 관광 브랜드를 창출하겠다"면서 "내장저수지 주변 개발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도 만들어 보고가는 관광을 넘어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외에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공기관 유휴부



<사진=김관영후보측>

지를 광장으로 재구축하는 도심 재생 활성화 △국가바이오 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 △우주 방사선 신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공약도 함께 소개했다.

김 후보는 또 김제시를 방문해 '농어촌이 잘 살고 K-푸드가 세계로 가는 전북'을 기조로 한 농어촌 7대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의 무한한 농업 잠재력에 첨단기술을 더하고, 과감한 정책을 결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농도의 심장 김제에서 기본생활·청년농수산·스마트팜·수출농업으로 대전환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약속한 7개 공약의 첫 번째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다. 그는 "교통·돌봄·주거를 묶어 정주여건을 개선

하고 순창과 장수에 도입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북 전역으로 확대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재생에너지 수익이 대기업이 아닌 주민소득과 마을 자원으로 돌아가도록 환원하겠다"며 "우량농지는 보호하면서 농민과 상생하는 영농형태양광 모델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예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비축농지 최우선 공급, 청년보급자리 주거 지원까지 전주기 밀착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AI와 로봇 기반의 완전 자동화된 3세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와 웹프산업 메가센드바스를 새만금에 만들어 규제없는 글로벌 전략산업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 어름칠 식중독

### 식중독 원인

- 충분한 가열없이 해산물, 육류 섭취
- 오랜시간 실온에 방치된 음식물 섭취
- 오염된 도마등 주방용품 사용
- 제대로 세척하지않는 채소류 섭취

# 윤 부시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점검

## 사전투표소 모의시험 확인 비상사태 대처매뉴얼 점검

윤동욱 전주부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소 설치 및 최종 모의시험 사항을 28일 점검했다. 윤 부시장은 이날 투표소 설비 및 통신망 연결 상황을 확인하며 보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시장은 최종 모의시험을 통해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 시험 출력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통신망 단절 등 비상사태에



윤동욱 전주부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소 설치 및 최종 모의시험 사항을 28일 점검했다 <사진=전주시>

대한 대처 방법과 관리매뉴얼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해 사전투표소 35개소와 선거일 당일 투표소 163개소(완산구 87개소, 덕진구 7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소는 29일과 오는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선거일 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 당일 모든 투표가 종료되면 전주화산체육관과 전주덕진실내배드민턴장 등 2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수도요금 자동이체·전자고지 시 할인

## 은행카드 자동이체 신청 시 요금 1%(최대 5000원) 할인 환경 보호·예산 절감 '일석이조'

전주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은행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액 1%(최대

5000원)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요금 고지서를 대체해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월 200원 요금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가구의 경우 매월 1%의 상하수도요금 할인과 200원 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관련해 현재 전주시역 총 23만8000여 수용가 중 13만4000여 세대(약 55.3%)가 수도요금을 자동 납부하고 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는 4만8000여 세대(약 20.1%) 이용 중이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는 수돗물 사용량과 사용 기간, 요금 등 납부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금 납부 내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또 고지서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 요금 자동 납부 및 전자고지 신청은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누리집(www.jeonju.go.kr/water\_m) 또는 전화(063-281-6860)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월 200원이 할인되는 전자고지는 자동납부(은행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 중이거나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결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청년이음전주 '청년 위한 감성 공간' 새단장

##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

전주시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이음전주'가 청년들을 위한 감성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장소로 탈바꿈했다. 시는 '청년이음전주'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상담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소

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단장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은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이들의 소통과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열린 청년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시는 일자리·창업·법률·주거·정신건강 등 1:1 개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독립 상담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개인학습실 공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했다. 또 공유라운지 역시 한층 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청년들이 언제든지 드나들며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문화 공유 공간인 '틈 갤러리'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

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하고, 서로의 감성과 창작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교류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이음전주' 공간 곳곳에는 '청년 참여 공간 문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반영한 따뜻한 문구들로 채워져 공간 이용자인 청년들에게 공감과 위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청 출퇴근 정체 해소...신호체계 개선

##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 추진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교통환경과 문화 개선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출·퇴근 차량 지·정체를 해소 하기 위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노선을 선정,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신호 연동 및 신호체계 개선을 집

중 추진한다. 이번 개선 조치는 출·퇴근시 시외진·출입 교통량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신호체계를 효율화하여 도심 내 교통정체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주에서 김제 및 군산·익산 방면으로 나가는 출근 차량은 '시간제 신호연동'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배출할 계획이다. 반대로 외곽에서 전주 도심으

로 진입하는 차량은 교통량을 조절해 순차적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자·정체시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28일에는 출근 시간대 교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교통과장을 팀장으로 한 합동 T/F팀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도로교통공단, 전주시

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소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북의 교통환경·문화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소방 "의용소방대원 강사로 변신했다!"

## 전북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지난 27일 도청 중회의실에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도민 안전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안전과 심폐소생술 분야 우수 강사를 발굴해 전국 강의경연대회에 출전할 도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회에는 도내 의용소방대원 15개 팀이 참가했다. 생활안전 분야 8개 팀, 심폐소생술 분야 7개 팀으로 나뉘어 경연을 펼쳤으며, 참가자들은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심사는 교안 구성, 강의 전개 방법, 강의 기술, 관련 지식 숙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단순한 발표 능력보다 도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 콘텐츠 구성과 현장 전달력에 중점을 뒀다. 대회 결과 생활안전 분야 1위는 완주소방서 봉동여성의용소방대 소속 이정란 대원이 차지했으며, 심폐소생술 분야 1위는 김제소방서 김제여성의용소방대 소속 김가영 대원이 수상했다. 두 수상자는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국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15개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조직되어 362개대 8,22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통해 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 (주)명일책임해양 공장 준공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군산 강소기업인 (주)명일책임해양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책임바지선 및 해양 구조물 생산시설 제조공장을 설립해 지난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주)명일책임해양은 미국선급협회(ABS) 인증을 받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용 책임바지선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 유망 강소기업이다. 특히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해양 구조물 특수장비를 국내기술로 제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핵심부품 공급망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만금 해양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명일책임해양은 지난해 6월 새만금 개발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1년 만에 공장을 착공하고 준공 및 가동까지 속도감 있게 투자를 실현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 강화

##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전주시보건소는 에볼라바이러스병과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7일 국내 감염병 발생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한 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또 WHO 권고와 국제 동향을 기반으로 중점감염관리지역을 남수단과 우간다, DR콩고,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5개국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또 해외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는 치명률은 높으나,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이 매우 낮아 국내 감염병 발생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이에 전주시보건소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및 한타바이러스 심폐증

후군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는 의심 환자 감시 및 진료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의심 증상이 있어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 여행력과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한 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전북대학교병원) 등으로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련해 에볼라바이러스병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피로감, 심한 두통, 복통, 구토, 설사, 원인불명의 멍·출혈 등의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의 경우 발열과 근육통, 두통, 무력감, 기침, 호흡곤란,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정소민 기자

# 덕진구 팔복산단 환경개선 추진

## 산업단지 기업활동 환경 제고

덕진구가 지역내 산업단지 기업활동 환경개선과 시민불편 제로화에 앞장서고 있다. 덕진구 임직원들은 지난 27일 팔복동 산업단지를 찾아 시민 보행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보행환경 개선 활동은 매년 반복되는 시민 생활불편 민원 해소 해결에 따른 것으로 이날 부서 합동으로 진행했다. 개선활동에 덕진구 시·구·동 직원 45명이 참여했으며 팔복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 신기전선 인근 등 총 1.1km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주변 녹

지대와 인도의 제조작업 및 잔여물 수거를 전개했다. 덕진구는 이와 함께 첨단복합 산업단지 주변 및 제2일반산업단지 팔복도시공원 인근에 대한 용역 작업도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산단 일대 도시미관을 개선시켰으며 쾌적한 인도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덕진구는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민원 주제를 선정해 '현장행정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시민불편 제로화에 앞장서고 있다. 덕진구의 환경정비 활동은 오는 9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은 유방암 환우들의 사회 복귀와 정서적 지지를 돕기 위한 유방암 환우회 '전북지부 핑크라이프'가 창단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전북대학교병원>

# 전북대병원 유방암 환우회 창단

## '전북지부 핑크라이프' 창단 유방암 환우 누구나 가입 가능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유방암 환우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정서적 지지를 돕기 위한 유방암 환우회 '전북지부 핑크라이프'가 창단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부 핑크라이프'(회장 김성미)는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환우 간 의료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순수 민간 환우 단체다.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의 전북지부로 활동하게 된다. 창단식은 전북대병원 GSK홀에서 열린 '유방암 환우 교육 및 심리지지 캠프'와 함께 진행됐으며, 유방암 환우와 유방·갑상선외과 의료진,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정소민 기자

유방암 환우회 '전북지부 핑크라이프'는 앞으로 유방암 전문의 초청 건강 강좌와 숲길 걷기 등 치유 체육활동,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유방암 환우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방암 환우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또는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고대안암병원 고유회 수어팀의 '수어힐링'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방암 최신 치료 및 예방·감상선외과 정형은 교수) △유방암 치료 후 건강관리(유방·갑상선외과 윤현조 교수) △전문의와 환자 간 질의응답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소개 및 환우회 가입 안내 △전북지부 핑크라이프 창단식 등으로 진행됐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 기후테크스타트업-앵커기업 협업 지원

## 기후테크 특화 오픈 이노베이션 컨소시엄 모집 ... 과제당 최대 3천만원 실증 지원금

전북도-전북TP가 기후테크 특화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사업은 전북 도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과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기반으로 기술 실증(Po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전북도내에서 실증이 가능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과 앵커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한해서다.

선정된 과제에는 과제당 최대 3천만원 규모 실증 지원금이 지원되고 총 6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

코테크 △푸드테크 △시오테크 등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연계 분야다.

주요 지원은 △에너지 데이터 솔루션 실증 △탄소배출량 자동추정 플랫폼 구축 △재활용 데이터 선별 기술 △스마트팜 기반 탄소저감 기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선정 기업에는 기술 실증 지원 이외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

'COMEUP 2026' 참가 지원, 투자(IR) 프로그램, 데모데이 및 성과공유회 참여 기회 등 후속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

## 국가재난예방 공로 인정 국가주요시설 선제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공사는 2025년 재난취약시설과 국가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점검

을 실시하는 등 전기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재난 위험요인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단체표창 영예를 안았다.

앞서 공사는 문화재·전통시장 등 약 3천개소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7백여건의 전기설비 위험요인을 발굴·조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힘

써왔다.

이어 배수펌프장·지하차도 등 국가주요시설 전기설비를 점검하며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공사는 노후 아파트·전기용타리·사회복지시설 등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이어 공사는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에 긴급 복구 인력을

투입해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더욱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특별점검을 지원하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도 했다.

한편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상은 지난 26일 '2026 방재의 날'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미래형 사과 재배 생산 체계' 구축

## 노동력 ↓·생산성 ↑ 2030년까지 확대

농촌진흥청은 '미래형 사과 재배 생산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사과나무는 '세장방추형' 형태가 주를 이루며 가지치기·꽃수확기·방제·수확 등 주요 작업의 기계화가 어려웠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재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생산 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평면형은 두 개의 줄기가 중심이 되는 '2축형'과 여러 개 줄기를 나란히 세워 놓은 '다축형'으로 구성된다.

이들 형태는 나무를 이차원으로 배열해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고, 관리 효율

을 높일 수 있다.

또 나무 안쪽까지 햇빛이 균일하게 투과돼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고, 열매 색과 당도 등 품질이 균일하게 향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재배 체계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트랙터 부착형 가지치기·꽃수확기·잎수확기 장치 등 기계화 체계를 구축하고, 품종과 나무 형태별 표준 작업 지침을 확립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기계 가지치기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수작업보다 노동력을 25~35%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현재 개발 추진 중인 기계 꽃수확기 기술 실증 결과,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활용하면 10아르(a) 면적의 꽃수확에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평면형 형태와 기계화 기술, 이미 개발한 무인 약제 살포 기술 등을 연계한 스마트 과수원 모형(모델)을 2030년 2,000헥타르(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 농촌주민 체감형 정책지원 '강조'

## '정부학계주민' 농촌공간계획 발전 "한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발전방향 모색에 따른 '2026 농촌공간계획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난 27일 △기조강연 주제 발표 4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한국농촌계획학회 신지훈 학회장은 '농촌다움과 농촌공간계획'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어 농식품부 안우영 과장은 '농촌공간계획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농촌특화 지구 활성화 등 2026년 농식품부 주요 정책 등을 발표했다.

한국농촌계획학회 조영재 박사 '최근

농촌공간의 이슈 및 재구조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이철 박사 '농촌특화 지구의 이해 및 운용 방향' ILD 스튜디오 최별 대표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우수 사례(전북 김제시 죽산면)'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최별 대표는 주민직접 참여에 의한 발굴이 끊겼던 농촌 공간을 되살리고 축제 등을 개최하며 마을을 다시 활성화 시킨 김제시 죽산면 사례를 발표했다.

최 대표는 변화를 이끈 당사자로서 "주민 주도의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주제 발표 이후 신지훈 학회장(좌장), 발표자 4인과 정혁수 부장(머니투데이), 성주인 본부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바람 전문위원(홍성군)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중구 농식품부 차관은 "포럼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농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신협재단·철도재단·초록우산, 14억6천만원 후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협력에 철도공익복지재단-초록우산과 함께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신협재단은 철도공익복지재단-초록우산과 협력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지난 해까지 8년간 △취약계층 아동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 '행복한집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전문문화체험 기자여행' △지역사회 기반 아동 지원 사업 '신협-아동'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총 49억 9천만원 규모 후원금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올해는 해당사업지속추진을 위해 14억 6천만원 후원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누적 후원금은 총 64억5천3천원에 이른다.

이날 세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바바+핑크박스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전달할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직접 포장하며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7일 철도공익복지재단-초록우산과 함께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성과공유회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편 신협재단과 철도공익복지재단, 초록우산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학생·청년 '공기업·대기업' 취업 강화

## '미래인재반 기업·직무 분석' 주제 특강교육 운영

도내 학생 및 지역 청년 대상으로 한 공기업과 대기업 지원 희망자 위한 기업 분석 능력 및 직무 이해 향상 특강교육이 운영됐다.

특강은 공기업과 대기업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학생 또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 목표를 핵심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미래인재반 기업·직무 분석 특강' 주제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공기업 및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및 지역 청년들은 기업·직무 이해도 향상이 따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교육에는 국립군산대 재학생 및 지역 청년 등 20여명 그리고 미래인재반 참여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구조 및 기업 분석 방법 △시장 환경 분석 △경쟁구조 파악 △재무 및 기업 정보 해석 등 실무중심 분석 기법 등이다.

여기에 참여자 기업 분석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의 진가를 더했다.

이어 2차 교육에는 △직무 개념 이해 △채용공고 및 직무기술서(JD) 기반 분석 방법 △NCS 기반 필요 역량 도출 △개인 경험을 직무와 연결하는 전략까지 단계적 학습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강교육은 기업·직무 분석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 및 기업 분석 그리고 직무 이해에 있어 체계적인 학습을 펼쳐 참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특강교육은 국립군산대학교 미래인재반과 군산시 청년플랫폼 공동으로 지난 20일과 27일 두차례 개최됐다.

관련해 강영숙 학생처장은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해 공기업 및 대기업 취업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국립군산대는 취업역량 강화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는 미래인재반 중심 지역 학생·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27일 개최된 '제29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소속 회원 3명 수상 영예를 안았다.

수상 주인공 소속 회원 3인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오른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소속 회원 수상자는 △주식회사 성우엔지니어링 이정아 대표이사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 표창) △(주)다솔이엔지 한병준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대성전력(주) 권광식 대표이사 (LH

사장 표창) 등이다.

한국전기문화대상은 한국전기신문사가 주최하고 매년 전력설비 시공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전국 단위의 유공자를 엄격히 심사해 수여한다.

이에 특히 이번 지역 도회 다수 수상자 배출은 의미가 크다.

최병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장은 "수상자분들께 거듭 축하 박수를 보내며 도회는 앞으로도 회원사들 권익 신장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국토정보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 협력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8일 부산광역시 공단에서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 관련 업무와 관련한 △인허가 및 재산관리 등을 위한 지적·공간정보 공동 활용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교육,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을 비롯한 고정밀 공간정보와 입체(3D)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국토 공간정보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제234호, 제235호가 28일 오픈됐다.

'JB희망의 공부방' 제234호, 제235호는 전주서신광진다함께돌봄센터와 전주평화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됐다.

서신광진다함께돌봄센터는 내부 벽면 노후화와 내벽 마감재 손상이 심해 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평화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사용하는 교구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부족하고 시설 노후

화로 인한 환경 개선이 시급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픈식에는 서신광진다함께돌봄센터 강진 센터장, 평화지역아동센터 최훈창 대표, 전북은행 조인성 부행장, 오은석 전주서신정치점장 등이 참석했다.

조인성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지역 사회 아동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건강

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정책 대신 비방”... 전북교육감 선거 ‘진흙탕 싸움’

## 사전투표 앞두고 천호성·이남호 후보 폭로전 격화

전북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천호성, 이남호 후보가 정책 대결 없이 폭로와 비방전만 이어가며 도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남호 후보가 제기하는 변호사비 대납과 사전선거운동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네거티브를 뚫고 도민과 함께 뛰는 120시간 총력 유세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 후보 측을 지지하던 공무원 A씨가 사업가 B씨에게 도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을 대가로 천 후보 등 5명의 변호사비와 벌금을 대납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 후보는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된 텔레그램방은 사전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선거 준비를 위한 단순 ‘사전 준비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 무수한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법적 대응을 한 적은 없었다. 이번만큼은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정렬하고 실력 있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의 회견 직후 이어진 이남호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천 후보의 해명이 오히려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키우

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녹취록과 사진을 추가로 공개해 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남호 후보는 “텔레그램 비공개방 ‘천 사랑’을 ‘사전준비방’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직 교사가 선거 조직도 구축 등 캠프 실무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와 사진이 있다”며 “새빨간 거짓말은 천 후보가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천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인 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선거 캠프와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6월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략 회의에 같이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은 투명성과 정직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도민들께서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북교육의 안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기준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유권자들은 도 넘는 비방과 고발전에 강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정모(29) 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교육감 후보들이 SNS만 들어가면 시끄럽다”며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모두 전북의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한 지역 교육계 인사는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정책은 실종되고 폭로와 비방만 난무하고 있다”며 “결국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법 및 재선거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성민 기자

## ‘전주국가유산야행’ 내달 5일 개막

구도심 일원서 이틀간 열려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야간에 체험하는 문화재 활용 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내달 5일과 6일 이틀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감영 등 전주 구도심 일원에서 ‘2026 전주국가유산야행’을 개최한다.

이번 야행은 후백제 왕도였던 완산주부터 조선시대 전주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주가 간직한 역사를 다층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올해 축제는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후백제 왕도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낸 참여·체험형 콘텐츠를 전면 배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 투어 형식으로 행사장 곳곳의 역사를 탐색하는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 △시민 참여형 민속놀이인 ‘견훤

대왕배 씨름대회’ △곽장근 군산대 역사학과 교수와 함께 동고산성과 종광대 등 유적지를 둘러보는 역사기행인 ‘후백제의 왕궁, 산성행’ 등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전주야행에서는 △국가유산 공포 체험 ‘경기전 준비실록’ △미션 숭배족질 ‘향교괴담’ △야간 경관 조성 ‘국가유산 빛나는 공간’ △풍남문 국악 공연 ‘뜻밖의 국악’ △역사 활용 미니게임 ‘국가유산 진검승부’ △국가유산 탐빛차회’ 등의 프로그램이 리뉴얼돼 운영된다.

전주국가유산야행 관계자는 “가볍게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주의 역사를 마주치게끔 동선을 구성했다”며 “야행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풍경과 체험을 통해 전주가 가진 또 다른 이야기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일정 및 사전 예약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국가유산야행 공식 누리집 또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 사격의 대부 박종길 전 차관, 체육 소장품 기증

## 메달 등 약 350점 전달

‘한국 사격의 대부’로 꼽히는 박종길 전 차관이 체육 소장품 기증에 동참했다.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북 체육 역사기념관 사업에 보탬이 되 달라며 값진 소장품을 전달했다.

기증한 소장품은 각종 메달 등 약 350점에 달하며 도 체육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 증서를 전달했다.

익산이 고향인 박 전 차관은 1974 테헤란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시작으로 1978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1982 뉴델리 아

시안게임 금메달 등 70~80년대 체육계를 품었다.

은퇴 후에는 사격 국가대표 감독과 대한사격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릉선수촌장을 맡아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

또 2012년 런던올림픽 선수단 총감독을 맡아 종합순위 5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개인차 역할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발탁되며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는 첫 정부 부처 차관에 오르는 기록도 세웠다. 박종길 전 차관은 “체육역사기념관이 꼭 조성 돼 체육 자선이 후손들에게



박종길 전 차관이 전북(전주)이 서울을 누르고 올림픽 국내후보도시로 선정됐는데 고향에서 올림픽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정철 기자

## ‘고창농악 상설극단’ 첫 공연 개최

고창군이 오늘 오후 7시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생생한 고향의 현장! 고창농악 상설극단’ 첫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6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 생생고창 국가유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설극단은 고창농악과 함께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농악을 초청해 선보이는 공연으로, 전통 농악의 흥과 멋을 군민과 관광객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첫 공연인 5월 무대에는 강원특별자치

도 무형유산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가 초청돼 고창농악과 함께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6월에는 청주농악보존회, 7월에는 부산농악보존회가 참여해 지역별 농악의 다양한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고창농악전수관 야외마당에서 진행되며, 지역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미곡 고창군 관광복지국장은 “고창농악 상설극단은 고향의 대표 국가유산인 고창농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향유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참가자 모집

## 내달 21일까지 참가 신청

군산시는 e스포츠 저변 확대와 세대간 소통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위해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아마추어 선수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1,000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4개 인기 종목으로 전국 게이머들의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브롤스타즈 △마인크래프트 등 총 4개 분야다.

이 가운데 브롤스타즈는 초·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인크

래프트는 참가자들이 게임 속 가상 공간에 군산시의 명소와 풍경을 직접 구현하는 ‘군산시 만들기’ 방식으로 운영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목별 참가 신청 기간과 예선 일정은 상이하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예선은 각각 내달 27일과 28일 진행된다.

마인크래프트 종목은 지난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대회는 내달 17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진행된다.

브롤스타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공식 접수 페이지(readyon.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최종 진출자들은 오는 7월 11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서 최종 승부를 펼치게 된다.

김영호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대회가 전국 아마추어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교류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고창문화의전당 ‘바흐x무브먼트’ 성료

고창문화의전당이 지난 26일 무대에 올린 ‘바흐x무브먼트’가 전석 매진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무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하유나, 박진수, 강유경이 참여해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를 연주했다. 특히 관객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하우스콘서트’ 형식 위에서 진행돼 관객에게 연주자와 무용수의 시선과 호흡이 교차하는 입체적인 예술 경험을 선사했다.

더하우스콘서트 강선에 대표는 “지역문화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도를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남원시, 춘향제 특별기획 KBS 1TV 전국 송출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를 기념해 제작된 KBS 1TV ‘국악한마당’ 특별방송과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전국 및 지역 시청자를 대상으로 송출된다고 밝혔다.

먼저 KBS 1TV ‘국악한마당’ 춘향제 특별기획 ‘전통의 숨결’은 오는 30일 오후 12시 10분에 방송된다. 무대에는 국악인 남상일, 박애리, 김다현, 안나예이츠를 비롯해 서의철, 김한샘과 박성호&거꾸로 프로젝트 등이 참여해 남원 국악의

깊이와 전통의 멋을 선보였다. 이어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방송은 내달 7일 오후 1시 3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이번 방송은 제96회 춘향제의 문화적 가치와 남원이 지닌 국악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춘향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경연의 감동을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 사고방지를 도와주는 도로위의 인내지

## 고속도로

### 킬리 주행 유도신



**초록색유도신**

휴게소, 졸음쉼터등  
고속도로 네 도로  
시설 운행 방향 유도



**파란색유도신**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  
무리에서 끼어들기 금지



**주황색유도신**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분홍색유도신**

길림길이나 IC/ JC  
구간 운행 방향 유도



# 김제시, 200억 규모 콩 가공시설 조성

## 농식품부 공모 선정... 농공산업 경쟁력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제시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국비 80억원)의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 관내 12개 농·축협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김제시농협 국산콩가공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규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공

덕면 일원에 국산 콩 가공시설을 조성해 농공 소비 기반 확충과 가공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콩애플" 김제 농공산업 거점지구 조성의 연계해 농공 생산부터 선별·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산업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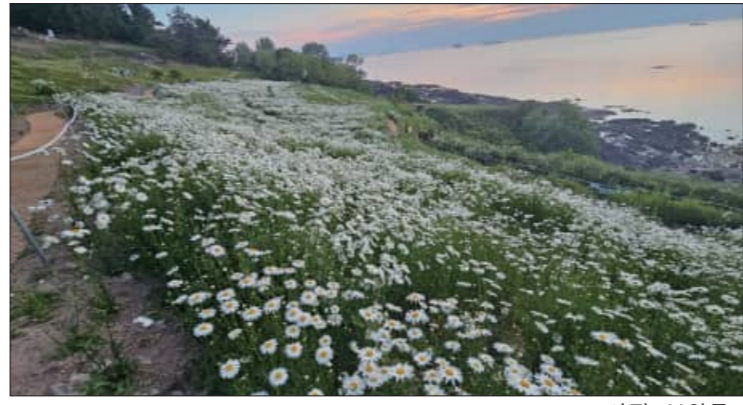
김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공 주산지로 지난 2025년 기준 약 7,200ha의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원물 생산 중심 구조에 머물러 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공을 직접 가공·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대상자인 김제시농협국산콩가공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 농공을 수매·가공할 수 있는 시설과 역량을 갖추고, 가공기업과 연계한 소비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시 김제시장권한대행은 "콩애플 김제 농공산업 거점지구 조성의 연계해 농공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부안군>

## 부안 변산마실길, 샤스타데이 '만개'

### '순백의 꽃길' 장관

부안군은 변산마실길이 다시 한번 순백의 꽃망울을 물들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5월이면 꽃망울을 터뜨리는 샤스타데이가 변산마실길 2코스(송포항~성천항)를 중심으로 1코스와 4코스 일원까지 아름답게 피어나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변산마실길 샤스타데이 군락지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명소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샤스타데이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다. 주요 군락지는 변산마실길 2코스 시점부터 4코스 언포 일원에 조성돼 있으며, 마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순백의 꽃풍경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푸른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샤스타데이 군락은 변산마실길만의 특별한 장관을 선사하며, 꽃망울 '인내', '순수', '평화'의 의미와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전하고 있다.

부안군 환경과 신익재 과장은 "샤스타데이와 서해의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진 변산마실길은 초여름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라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말과 휴일에는 변산해수욕장 주차장과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꽃밭 훼손 방지와 안전한 관람을 위해 성숙한 관광문화 조성에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 기획감사실 토마토 재배 농가 일손돕기

김제시는 기획감사실이 지난 2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산면 소재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직원 12명은 황산면 남산리의 한 토마토 농가를 찾아 토마토 아크 제거 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바쁜 업무 중에도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덕분에 작업을 제때 마무리할 수 있어 품질 좋은 토마토 생산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은 "현장에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와 현장 소통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도시민 귀농귀촌 체험학교 개최

## 2박 3일간 정주여건 탐방 및 영농 체험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회장 이성기)는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간 예비 귀농귀촌인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기 도시민 귀농귀촌 체험학교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이 높은 도시민을 유치해 지역의 우수한 정주여건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단기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1기 교육생은 경기도 10명, 서울 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72%를 차지했으며 연령대 또한 귀농·귀촌의 핵심 주축이 되는 40~50대가 17명으로 고르게 분포돼 군 귀농 정책에 대한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주요 교육 과정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중심으로 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설명,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체



부안군이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제1기 도시민 귀농귀촌 체험학교를 개최했다.

<사진=부안군>

험, 귀농 성공모델 현장 탐방 및 체험, 부안 명소 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이번 체험학교는 단순 체험관람에서 벗어나 직접 농사일을 체험해 보는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연계해 교육생들이 관내 참여농가 4곳에서 농촌 일자리를 경험하고 농업 경영의 실정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해 교육

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성기 센터 회장은 "이번 2박 3일간의 여정이 교육생들이 부안을 제2의 고향이자 최종 정착지로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군 구시포항 위판장, 첫 위판

## 수산물 유통 거점... "어업인 소득증대 최선"

고창군 구시포항이 최신식 수산물 위판장과 면세유 주유소를 기반으로 서해안 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구시포항 위판장이 지난 22일 중화 2050kg을 첫 위판하며 본격적인 수산물 위판을 시작했다. 향중 홍하, 꽃게, 송어 등 사계절 다양한 어종 위판을 통해 활력 넘치는 위판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수산물 물류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상자 약 2만개를 전격 지원할 예정이다. 위판 환경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구시포항 수산물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면세유 주유소 역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어업인들



고창군 구시포항 위판장이 지난 22일 첫 위판을 시작했다.

<사진=고창군>

의 조업 편의를 크게 높이고 지역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구시포항 현지 유류 공급을 통해 올해 1월 본격 가동 이후 면세유 약 113만리터를 공급하며 고유가 시대에 이동거리 단축과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이전에는 상하해리의 어업인들은 면세유를 받기

위해 30분 넘게 고창읍으로 멀리 이동해야 했었다.

강원희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사계절 내내 풍성한 수산물이 유통되는 활기찬 위판장을 만들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우수

## 대기환경질 개선 등 환경관리 노력 인정

김제시는 28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지난 2023년도부터 4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강화와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17개 광

역시·도와 228개 시·군·구 총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배출업소 점검을, 위반율 및 오염도 검사 등에 대해 환경관리 실태 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배출업소 수를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평가에서 점점률 100%, 위반율 25%를 달성했으며 대기 및 수질 오염도 검사 23건을 실시해, 45개 지자체가 속한 그룹 중 5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 등 노후 방지시설 교체와 설비개선으로 대기환경질 개선 등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기술인 등 사업장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대기·폐수 등 배출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전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 4대폭력 및 신종범죄 대응

고창군이 지난 27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성평등한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4대폭력 및 신종범죄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박에스터 강사는 △성별 고정관념 및 혐오문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4대폭력 및 신종 폭력범죄 예방 △사내 중심의 폭력예방 실천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직자 맞춤형 교육으로, 성별 고정관념과 혐오문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4대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 신종 폭력범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법과 성인지 감수성, 폭력예방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양성평등하고 폭력없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폭력예방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AI 사무원 일자리협력망 회의' 개최

김제시는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지난 27일 '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AI 스마트 신입사무원 과정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협력망은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업무 환경에 맞춰, 생성형 AI 활용 능력과 핵심 전산 실무 역량을 겸비한 맞춤형 인재들의 취업을 연계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고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고용 유관기관,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해 △AI 사무자동화 분야 인력수요 △교육과정 운영 방향 △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 △채용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력망 위원들은 "최근 들어 AI 등 디지털 도구를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채용 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는 흐름"이라며 "새일센터의 이러한 선제적인 실무교육이 신입 사무인력의 현장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유연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숙영 새일센터장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긴밀한 기업 협력을 통해 교육훈련생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나선다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종석)와 새마을운동부안지회(지회장 권명식)는 지난 26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안지회는 지역사회 봉사과 나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조기 발견,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취약계층 심리·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운동부안지회와 협력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지회 관계자는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직결된다"며 "새마을운동의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상신 부안성황리이노스클럽 이임회장, 100만원 기부

부안군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부안성황리이노스클럽 이·취임식이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이임회장인 서부조경 김상신 대표가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임 회장 감사패 전달과 신입 회장 취임,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원간 화합과 지역사회 봉사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김상신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김상신 대표께 감사드립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을 응원하는 나눔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 아산면 지사협, 취약계층 50세대에 밀반찬 나눔

고창군 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나눔과 안부 살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아산면의 특화 사업인 '우리동네 냉장고 채우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50세대를 직접 방문해 밀반찬을 전달하며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꼼꼼히 살폈다.

단순한 식품 전달을 넘어,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이웃들을 찾아가 말벗이 돼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허영삼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매개로 이웃들과 눈을 맞추고 진심을 나누는 과정이 우리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택 아산면장은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어가는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주민이 주도하는 나눔 문화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아산면을 만드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무주군, 재가 암 환자 방문 건강관리 지원

무주군은 폭염에 취약한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주민 중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재가 암 환자 236명(완치자 143명, 치료 중 90명, 치료 중단 3명)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이 내달 26일까지 5주간 해당 가정을 순회하며 환자별 맞춤형 간호 서비스와 건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자궁암, 간암 등 암 종류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한 △투약 지도(방법 및 시간 준수 교육)를 비롯해 △건강 상태 확인, △간호 처치, △환자 상태에 따른 건강 상담 및 전문의 진료 안내를 병행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시간대 외출 자제 등의 행동 요령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 응급실 전화번호 등도 공유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읍 중동모경로당 어르신들 들꽃 천아트 전시회

임실읍 중동모경로당 어르신들이 천과 들꽃으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특별한 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임실읍 중동모경로당 어르신들은 지난 26일 임실읍행복누리원에서 '들꽃 천아트 프로그램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임실읍사무소 벽면 공간을 활용해 작은 예술 전시장으로 꾸며졌으며, 어르신들 손끝에서 완성한 천아트 작품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는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취거림이 주최하고 임실군이 주관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주민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약 6주 동안 진행됐다. 중동모경로당 어르신 10여 명이 매주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천 위에 색과 선을 더해 독자만의 '들꽃 천 아트'를 완성해 갔다.

작품에는 클로버와 풀꽃, 썬바귀, 민들레, 들국화, 질경이 등 들꽃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꽃들이 담겼다. 흰 천 위에 피어난 들꽃은 어르신들의 삶과 기억, 따뜻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전북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 위한 간담회

진안군은 28일 군청 부근수실에서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문병량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준비상황 전반과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대회 기간 선수단 및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숙박·교통·안전관리 대책과 개·폐회식 운영, 주요 시설 점검 등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개·폐막식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함께 진행하며 시설 운영 상황과 관람객 동선 등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부안 로컬푸드 할인전 '성황'

### 상호 교류 품목 인기 직매장 매출 증가세 나타나

진안군과 부안군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진안-부안 로컬푸드 상생협력 특별 할인전'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직매장 매출 증가세 이어졌다.

이번 할인전은 지난 4월 체결한 '진안-부안 지역먹거리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상호 교류·판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 예산 500만 원을 투입해 특별 할인행사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

와 홍보를 함께 추진했다. 행사 이후 직매장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행사 기간동안 진안점의 일 평균 매출액은 900만 원 수준에서 1,500만 원대로 증가했으며, 전주호성점도 일 평균 매출액 2,500만 원 수준에서 3,000만

원대로 상승하며 뚜렷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할인행사와 함께 양 지역의 상호 교류 품목 판매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류 품목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 높게 나타났다. 진안에서는 부안의 마른 오징어, 자른미역, 곰창김 등 수산가공 식품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부안 지역에서는 홍산농축액·절편 등 홍산 가공품과 참쌀유과, 쫄면기류 등 진안의 전통식품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지역 상권 차별·활성화 주력

### 무주랩프상권 점포육성

무주군은 무주읍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화 네트워크'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주랩프상권 내 '창업점포', '스타점포', '핵심점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신만의 비결과 차별화된 품목을 지닌 점포를 발굴·지원해 취재한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랩프상권(무주읍 상권 활성화 구역·반딧불시장 및 무주읍 전·후 간 도로 417개 점포)

내에서 점포를 영업 중이거나, 상권 내 빈 점포를 이용해 창업을 희망하면 6월 10일까지 무주읍 상권 활성화 추진단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창업점포' 지원 대상은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기존 상인 중심 상권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업종을 전환한 지 6개월 미만인 자로, 1개 점포를 선정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스타점포'는 상권을 대표할 만한 먹거리 메뉴를 취급하는 곳으로 총 2개 점포에 각각 3백만 원을 지원한다. '핵

심점포'는 먹거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하며 특화된 품목을 취급하거나 이야기거리가 있는 점포 2곳을 선정해 각각 3백만 원을 지원한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서류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신청자 역량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아이템, 성장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 점포를 선정할 것"이라며 "침체한 상권을 살리는 핵심 점포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역 KTX 정차 실현 탄력

### 군·국가철도공단 업무협약 임실역 KTX 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 진행 중

임실군이 국가철도공단과 손잡고 임실역 활성화와 철도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오랜 숙원사업인 임실역 KTX 정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28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KR)을 방문해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현안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실군의 철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와 연계한 지역발전 및 임실역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임실역 KTX 정차 관련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임실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KTX 정차를 비롯한 철도 현안 해결을 위해 제도적·실무적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임실군 철도 관련 주요 공동 대응 △임실역 활성화 및 철도 이용 여건 개선 △임실역 주변 개발 및 연계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



심 민 임실군수는 28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KR)을 방문해 '철도 현안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임실군>

다. 그동안 임실군은 임실역 KTX 정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지역 접근성 향상과 균형발전 차원의 철도 교통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협약은 국가철도공단과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임실군 철도정책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역은 전라선 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임실지역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향후 KTX 정차가 실현될 경우 임실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장수·진안 등 인근 시군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개선,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증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군은 앞으로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실역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정비 및 개발, 지역 관광·산업 자원의 연계사업 등을 추진해 철도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인 임실역 KTX 정차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철도공단의 실무협의 체계를 강화해 철도 이용 활성화와 역 주변 연계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금 6억 지급

### 장학금 역대 최대 규모 상반기 장학생 670명 선발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급 규모를 재단 설립 이래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며 학생 지원 강화에 나섰다.

재단은 '2026년 제1차 임시의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단의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학금 신청

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상생과 함께 대학 1학년생의 장학금 신청 수요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장수군의 교육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지역 인재 육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은 증가한 신청 수요에 맞춰 장학 지원 예산을 적극 확보했으며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장학금 지급액은 총 6억여 원으로 재단 설립 이후 한 학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은 총 670명으로 장학금은 29일 지급할

예정이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성적우수장학금 64명 △지역고교 입학우수장학금 7명 △대학생 반값등록금 장학금 155명 △대학생 주거지원비 장학금 410명 △대학생 희망장학금 30명 △예체능문화인재육성장학금 3명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 1명 등이다.

박진희 재단 사무국장은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장수군만의 특화된 교육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 판소리 '클래식 심청전' 개최

#### 예술담은나라 두 번째 공연

장수군은 지난 27일 장수 한누리 전당 소공연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담은나라(지휘자 이대정량)의 두 번째 공연 '클래식 심청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지역 우수한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대표 고전 설화인 '심청전'을 클래식 음악과 판소리로 재해석한 창작 공연으로

약 200명의 관객이 함께한 가운데 80분간 진행됐다.

전통 판소리의 구성과 정서를 바탕으로 클래식 선율과 합창, 퓨전국악을 접목해 세대 구분 없이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

공연에서는 심청과 심봉사, 뽕떡어미 등 익숙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효와 가족애의 의미를 풀어냈다. 판소리 대목에 'Ave Maria', '시네마 천국', '신세계로부터' 등 관객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이 어우러지며 작품의 감동을 더했고, 공연 내내 관객들의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안전 이상 무!"

#### 안전점검 완료... 시설 관리 총력

임실군이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옥정호의 대표 관광 명소인 '옥정호 출렁다리'의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안전점검 용역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점검 역시 차질 없이 완료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출렁다리의 핵심 구조물인 주탑과 거더의 안정성, 케이블의 손상 여부를 비롯하여,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인 보행로 테크와 난간,

부속 시설물의 고정 상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옥정호 출렁다리는 주요 구조부의 변형이나 중대한 결함이 없는 '양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개통 이후 보어섬 생태공원과 연계되어 겨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은 옥정호 출렁다리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임실 관광의 필수 코스다. 군은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옥정호를 찾는 방문객들이 오롯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실태 점검

장수군은 지난 27일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가족방역체계 운영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동 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상황과 배치기관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현장 중심의 방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은 장수군을 포함한 도내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등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업무분장 및 복무관리 현황 △인사관리부 및 근무상황표 작성 여부 △초·근무 및 연가 사용 실태 △직장인 탈·지각 등 불성실 복무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 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도 함께 수렴해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가족방역체계 구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복무 만족도가 높고 근무 여건이 우수한 기관 사례는 향후 우수사례로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실시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소독은 각 읍면별 방역소독 인력 17명이 투입돼 휴대용 연무기와 방역차량을 활용한 초미립자 연무소독 방식으로 실시되며, 물을 희석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기와 냄새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살충효과는 유지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을 줄이고 화재 위험이 적은 친환경 방역 방식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원에서는 지난 5월 8일 방역소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장비 사용법과 약품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방역장비 사전 점검과 수리 등 하절기 방역 대응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했다.

또한 하천변, 공원, 주택 밀집지역 등 위생해충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임실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위생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기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정읍 월영마을 김문선 노인회장, 지원금에 사비 더해 반찬 기탁

정읍시 내장상동 월영마을 김문선 노인회장이 지난 25일 고구가 피해 지원금에 사비를 더해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밑반찬을 지역 공유냉장고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로부터 받은 고구가 피해 가족 지원금 40만 원에 사비 60만 원을 보태 반찬을 준비했다. 이렇게 마련된 음식은 공유냉장고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김문선 노인회장은 "평소 마을 노인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됐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냉장고를 자주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음식 재료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 컸다"며 "이렇게 정성껏 준비된 반찬을 지원받게 돼 식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김제 용지면 복지기동대, 여름철 맞이 비닐가림막 제거 봉사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경민)가 28일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겨울철 설치했던 비닐가림막 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닐가림막은 겨울철 한파를 막고 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름철에는 실내 환기를 방해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시급하게 준비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비닐가림막을 안전하게 절거하고, 창문과 출입문 주변 정리정돈까지 꼼꼼히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대상자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며 생활 속 불편 사항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온봉기 기자

## 남원시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행사

### 사회 정착 위한 멘토링

남원시는 지난 27일 관내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한 결혼이민자들과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한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트맘 맺기' 사업은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 땅에서 생활하며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과 지역 사정에 밝은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을 1:1 멘토·멘티로 매칭해 주는 남원시의 대표적인 다문화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은 결혼이민자 10쌍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정착 전도사'이자 '뜨거운 친정엄마(하트맘)'가 되어, 일상생활 속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5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는 11월에는 하트맘과 멘티들이 다시 모여 '전통 고추장 및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도 촘촘히 마련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는 지난 27일 결혼이민자들과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 익산불교사찰순례단, 인화동지사협에 100만원 기탁

익산시 인화동은 28일 '익산불교사찰순례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익산불교사찰순례단 정권윤 단장과 임원진은 부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기탁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기탁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불교사찰순례단은 불자들의 수행과 포교, 회원 간 화합을 위해 2022년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1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지역 불자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권윤 단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행과 포교는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고창 상하면지사협, 홀로 어르신 생신 축하

### 선운산 푸른 떡집 후원

고창군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상하면 웅덕마을에 거주하시는 홀로 어르신을 찾아 여든다섯 번째 생신을 기념하는 '떡 케이크'를 전달하고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매년 나눔을 실천하는 선운산 푸른 떡집에서 후원한 떡 케이크와 상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준비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생신을 맞은 어르신은 지난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에서 카네이션 브로치와 기념품을 받아 기뻐했는데, 오늘 또 생일까지 축하해 주셔서 기쁘다면서 연신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전봉식 위원장은 "우리 협의체가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 청소년문화의집, 전통놀이문화 체험 진행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놀이문화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협동심과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천형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신체 활동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돕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얼쭈 우리놀이'를 운영

하고 있다.

오는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얼쭈 우리놀이'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우리 고유의 놀이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협동심과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청소년들은 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규칙을 익히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집중력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 김제시 자원순환과,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 "언제든지 손 보태겠다"

본격적인 불철 영농기를 맞아 김제시 자원순환과가 영농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힘을 보태며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자원순환과 직원 15여명은 28일 용지면 소재의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참여한 직원들은 작업 요

령을 숙지한 뒤, 비닐하우스 내 잡풀, 잡목 등을 제거, 농장 주변 환경 정비 활동에 동참하며 본격적인 작업 지원에 나섰다.

오형석 자원순환과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 아산면지사협, '사랑의 밑반찬' 나눔

고창군 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7일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나눔과 안부 살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아산면의 특화 사업인 '우리 동네 냉장고 채우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50세대를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며 생활의 불편함을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단순한 식품 전달을 넘어,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이웃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허영삼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매개로 이웃들과 눈을 맞추고 진심을 나누는 과정이 우리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잠시멈춰 분류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一事一言〉



지지층도 외면한 오만한 정치의 종말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만었던 지지층마저 고개를 돌리는 정치는 이미 그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한 세대 가까이 특정 정당의 절대적 지지 기반을 차지하며 묵묵히 표를 던져온 전북의 민심이 지금 무섭게 요동치고 있다. 최근 전북 정가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에는 분노를 넘어 깊은 환멸과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선관위의 검찰 고발과 진실을 말한 청년들을 향한 비정한 보복 수사라는 구태의연한 추태 앞에, 골심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부끄러워서 더는 표를 주지 못하겠다”며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뒷발이라는 안일한 착각 속에 안주해 온 기성 정치권을 향해, 마침내 ‘집토끼’라 불리던 핵심 지지층이 가장 매서운 경고장을 빼 들어 올린 것이다.

어제자 본지 1면이 전한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균열과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가장 폭발력 있고 준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개입 혐의로 현직 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초유의 사태는, 그간 전북 정치를 좌지우지해 온 권력자들의 오만함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다.

정당의 깃발만 쫓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경선 과정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정 의혹으로 얼룩지게 했다. 오랜 세월 당을 지켜온 당원들마저 “이것이 우리가 믿어온 정당의 민낯이다”며 고개를 짓누르는 현실은 작금의 전북 정치가 도덕적으로 파산했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더욱이 도민들이 깊은 모멸감을 느끼

는 지점은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약자와 청년을 가차 없이 희생양으로 삼는 비정한 정치 공학이다. ‘정읍 식사비 대납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어 양심선언을 했던 청년들을 향해, 이원택 후보 측은 ‘정치공작’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며 사법 고발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는 ‘청년과 약자 대변’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위선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 후보가 수시로 해명을 바꾸며 비겁하게 숨는 동안, 진실을 말한 청년들은 사지로 내몰렸다. 이에 전통적 지지층인 4050 세대뿐만 아니라 2030 청년 당원들까지 “치부를 덮으려고 청년의 장래를 짓밟는 조폭식 정치를 더는 눈감아줄 수 없다”며 당의 행태에 단호히 등을 돌리고 있다.

정당의 권력이 도민의 자존심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택 후보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작금의 경선 파행과 도민들의 분노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기 kyn, “중앙당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구차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의 부름을 받은 지도자가 지역 민심의 이반을 외면한 채 중앙 정치의 방패 뒤로 숨는 모습은 비겁함을 넘어 전북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당이 전북을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수기이자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확신이 지지층 내부에서 확산되면서, 민심은 이제 정당 정치의 대안과 인물론을 향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과거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일컬어 ‘구상유

취’라 꾸짖는 바 있다. 지금 전북에서 깃발을 흔드는 권력자들의 행태야말로 구상유취를 넘어, 입으로 방귀를 끼고 배설물을 쏟아내는 정상적이지 못한 꼴과 다름없다. 자신들을 키워준 지지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진실을 말한 청년들을 억압하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비정함의 끝은 언제나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원택 후보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민심의 이 서글프고도 차가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제국의 풍경은 자국 내에서조차 외면받아 몰락의 길을 걷기 마련이다.

운명의 6월3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투표는 단순히 후보 한 명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북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여겨온 오만한 정당 권력에 대한 유권자 주권 선언의 날이 되어야 한다.

전북의 주인은 정당도, 타락한 세력도 아닌 오직 도민이다. 도민들은 더는 정당의 노예가 되어 무조건적인 맹종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이들, 청년의 양심을 짓밟은 이들은 주권자의 준엄한 회칙 앞에 똑똑히 심판받아야 한다. 뒷발의 균열은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써 내려가라는 도민들의 위대한 명령이다. 그 준엄한 심판의 손끝에서 전북 정치의 진정한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사설

공정 선거 무너지면 지방자치도 흔들린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는 사라지고 조직과 동원만 남아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잇따르는 불법 문자 발송과 사전 선거운동 논란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하지만, 현실은 문자폭탄과 조직 동원, 줄 세우기 정치가 판을 흔드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 발송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돈과 조직, 동원력이 선거를 좌우하는 순간 지방자치는 민심이 아니라 세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흑탁 선거가 반복되면서 도민 사회 전반에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

이다. 정책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세를 과시하는 정치만 남는다면 유권자는 정치 자체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는 특정 후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정치 전체의 품격과 신뢰 문제다.

전북선관위 역시 단순 계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공정하고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솜방망이 대응이나 선택적 단속 논란이 불거지는 순간 선관위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공정 선거가 흔들리면 지방자치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직의 힘이 아니라 정책의 경쟁이며, 문자폭탄 정치가 아니라 도민 앞에 당당한 비전 경쟁이다. 민주주의는 요란한 동원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정치권 모두가 다시 새겨야 할 때다.

독자투고

적법한 신고가 만드는 성숙한 집회문화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미신고 집회는 주최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회 과정에서 도로 점거,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신고 집회 주최자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산명령 불응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미신고 집회의 양상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즉흥적 집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전 계획 없이 다수가 모여 도로를 점거하거나 행진을 이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신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불법성을 축소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집회는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은 물론, 돌발적인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 ‘대법원 2010도6388’은 “단순히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과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며 명백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해산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신고 여부만으로 집회의 자유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판결은 미신고 집회를 허용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아니다. 법원 역시 신고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집회 신고는 집회를 허가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숙한 집회문화는 적법한 절차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안전과 일상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신고된 집회는 경찰의 교통관리와 안전대책이 가능해 충돌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참가자 역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전한 민주사회는 법과 질서 속에서 완성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당당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집회는 반드시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오늘의시

각 / 박남준

칼을 들고 목각을 해보고서야 알았다

짜 넣던 시간들이 한 몸을 이루며

비로소 곱고 단단한 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것

나무가 몸 안에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쪽과 저쪽 밀고 당기고 뒤틀어가며 엇갈려서

제 살을 온통 통과하며 상처가 새겨질 때에야 보여주기 시작했다

츄츄히 햇빛을 모아

오랜 나날 비틀러야만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영광 출생. 전주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시인’지에 ‘할매는 꽃신 신고 사랑노래 부르다가’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2003년 전주 모악산방을 떠나 하동 약양면 동매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전주시 예술가상과 거창 평화인권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풀여치의노래’ 등의 시집과 ‘쓸쓸한 날의 여행’,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 등 산문집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기요금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 ?**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백열등과 비교해 전기요금 80%절감효과

# 김제시, 맨발로 걷는 힐링 도시로

## 모악산 '모악숨길'·시민문화체육공원 맨발길 인기



김제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힐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맨발걷기길이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대표적인 자연 친화형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도심 속 일상형 맨발 길인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맨발 산책로와 자연 속 체험형 힐링 공간인 모악산도립공원 황톳길을 연계해 시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건강한 걷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악산도립공원 잔디광장 일원에 조성된 맨발걷기길은 최근 '모악숨길'이라는 새 이름을 입으며 자연과 감성을 담은 김제 대표 걷기 명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편집자주)

### □ 숲 황토·계곡이 어우러진 모악산 '모악숨길'

모악산 맨발걷기길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순환형 황톳길로, 기존 140m(폭 3.5m) 구간에 400m(폭 1.8m)를 추가 연장해 지난해 총 540m 규모로 조성됐다.

울창한 숲 그늘 아래 조성된 황톳길은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걸을 수 있으며, 인근 계곡과 등산로 하산길이 연결돼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하루 500여 명이 찾는 등 전국적인 맨발걷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모악숨길'은 건식·습식 황톳길을 함께 구성해 다양한 촉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족장과 황토볼 체험장, 습식 황토족욕장, 원목·통나무·호박돌·해미석 지압 체험장 등을 갖춰 단순한 산책을 넘어 오감 체험형 힐링 공간으로 조성됐다.

또한 황톳길 주변에는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작은 정원형 경관을 연출하고, 걷는 동안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울창한 숲과 계곡, 다양한 체험시설이 어우러진 모악산 길은 맨발걷기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걷기 명소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입소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에서 방문한 김모 씨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좋은 길이 가까이 있어 정말 좋다"며 "걷는 내내 숲과 계곡을 함께 느낄 수 있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조성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 '모악숨길' 새 브랜드...감성·스토리 더한 걷기 명소로

시는 최근 모악산 맨발걷기길에 '모악의 숨결과 기운을 느끼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아 '모악숨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고, 단순한 맨발길을 넘어 감성과 이야기가 있는 체험형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모악숨길 주변에 대형 레터링 포토존과 자연 소재 벤치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간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테마 공간도 5월 중 조성할 예정이다.

생태주차장 산책로에는 수국 식재를 통한 '수국수국길'을 조성해 여름철 볼거리를 제공하고, '개화문' 주변에는 그라스류 식재와 감성 포토존을 설치해 상징적인 경관 공간으로 연출할 예정이다.

잔디광장 입구에는 꽃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꽃맞이길'을 조성하고, 맨발걷기길 세족장 인근에는 사계절 머무를 수 있는 '침의정원'을 마련해 걷기 전후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약속나무' 구간에는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함께 자라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 의미를 담은 스토리 안내판을 설치해 함께 걷는 길의 따뜻한 의미를 전달했으며, 곳곳에 감성 문구를 배치해 걷는 즐거움과 소소한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 시민 가까이에서 즐기는 건강한 걷기 문화 확산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인 시민문화체육공원 편백숲 일원 맨발산책로 역시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접근성이 뛰어나 일상 속 가벼운 운동과 산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건강 증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시민문화체육공원과 모악산 맨발길을 각각 도심형·자연형 힐링 공간으로 특화해 운영하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걷기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 공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모악숨길과 시민문화체육공원 맨발길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 속 건강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악산의 자연자원과 감성을 접목한 차별화된 걷기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김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힐링 걷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은봉기 기자

